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김수환 추기경 신드롬을 보며

당나라 때 보화(普化) 스님은 요령을 들고 다니며 가르침을 줬다. 입적할 때를 미리 알았던 스님은 스스로 관을 만들었다. 관을 짚어진 보화 스님은 대중들에게 "내일 동문 밖에서 열반하겠단다"고 말했다. 큰스님의 입적 소식에 대중들이 운집했다. 보화 스님은 "오늘 말고 내일 날부터 가려다"고 말했다고, 다음 날은 서문에서, 그 다음 날은 북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하루 미뤄질 때마다 사람들은 "속았다"며 스님의 입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북문에 이르러 아무도 오지 않자 스님은 "이제야 갈 때가 됐다"며 한참 요령을 올리고는 관 속에 들어가 입적했다.

보화 스님은 죽음을 거추장스럽게 남에게 보이려하지 않았고, 남과 함께 하려고도 없었다.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친다')는 善生福終의 준말에 전 국민적인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40여 만명이 이념·계층·종교를 초월해 김 추기경을 만났다.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김 추기경의 행적이 '착했던' 까닭에 추모를 위한 인파가 물러 그를 '복되게' 한 것이지만, TV와 신문 보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19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불교와 사회 포럼에서도 김수환 추기경 선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까지 찾은 조문 행렬에 불교역할을 돌아보게 됐다"는 참가자부터, "추기경 권한을 가진 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고 존경받아야 한다. 가톨릭이 가진 권력과 불평등에 대비해 불교 정신을 부각시킬 대안이 시급하다"는 참가자까지. 이들은 무엇보다 불교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명동성당으로 이끈 미디어의 위력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만 봐도 1993년 성철 스님 열반 당시 스님의 열반 소식과 생애·업적의 단 두 쪽이었던 김 추기경과 관련해서는 안지된 유리관 온도까지 알려주며 매일 주요 뉴스로 대어섯 쪽씩 이상 내보냈다. KBS는 물론 조선·중앙·동아 등 일간지도 예외는 아니다. 미디어들의 과잉 보도를 보며 해당 기관 이사회나 제작진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는 쉽다. 불교 미디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물 사령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 행동하고 은밀히 행함(潛行密用)'을 미덕으로 여기던 가풍을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개소식

여성 불자들이 여성인권상담, 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망이다. (사)지혜로운여성들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계 최초 여성인권상담소인 나무여성인권상담소(원장 김영란)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일법 스님(중앙총회위원장),

이은영 원장(불교여성개발원), 손안식 부회장(중앙신도회), 박광서 대표(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종 스님은 축사에서 "사회약자,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소통의 통로가 생겼다"며 "포교원도 여성 인권의 질적 향상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관련조항 삭제!

### 교과부, 불교계 의견 수용 금주 중 공식공문 회신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종교시설 설립 조항이 삭제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는 2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교과부가 2월 중으로 종교시설 설립 조항 삭제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문준수 사무관(대학경영지원과)은 "불교계 의견을 수렴해 종교시설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현재 구두 결재한 상태며 종자연과 종평위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종교시설 규정 조항 삭제는 잇따른 불교계 항의에 따른 것으로 교

계는 종교 간 갈등 유발 및 종교 자유 침해소지를 들어 반대해 왔다.

이번 조항 삭제에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임중인 세영 스님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월 9일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이의 신청 마감일인 2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내부결재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2월 5일 안건 심사 기구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의의견을 접수시키고, 13일 세영 스님이 직접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

에게 불교계 목소리를 강력히 전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종교 침해 판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과부에 개정조항 삭제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종교편향에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종평위와 종자연 등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종교편향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재가단체와 이를 알린 교계언론, 강력한 의사표명으로 조항삭제까지 이끌어낸 종단이 함께 대처한 하나의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불자생도·초급장교 포교 나섰다

#### 군종교구 표창장... 불자카드 등으로 지금심 구취



2월 18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스님, 군법사, 불자생도 일동이 힘찬 군 신생활을 다짐하며 웃고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명)가 초급장교 및 사관생도 집중포교에 나섰다.

군종특별교구는 2월 18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안국선원 수불 스님을 제자로 63기 입관 및 67기 생도 입교 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24일에는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49기 입관 환영법회를 개최했고, 25일에는 3사관학교에서 44기 생도 입관 및 46기 환영법회를 개최했다.

3월 3일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57기 입관 및 61기 입교 축하 법회가 열릴 예정이며, 4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65기 입관 및 69기 입교 축하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입관 및 졸업법회에서 우수 불자생도에게 총무원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각 부대에서 시제 및 금박불자카드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장교 신행정보화 방안도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포교사회 국제포교사 연수생 모집

조계종 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외국인 포교에 헌신할 제 14기 국제포교사 양성교육을 모집한다.

조계종 소속 스님이나 재가신도로서 영어로 수강이 가능한 자는 3월 6일까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승려증 및 사본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02)722-2206 이상언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와 사진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 사회홍보, 행사, 개신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연,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감독(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연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10·27법난 실무사무소 헌판식



10·27법난의 진실을 기록하고 명예회복 하기 위한 보증자리가 마련됐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2월 1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명예회복 실무사무소 헌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헌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장 지관 스님과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보선 스님(중앙총회 의장), 등 조계종스님들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헌정권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불교상담개발원 성희룡 파문 조사 착수

#### 2월 17일 조사위 구성하고 진상 규명키로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K씨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월 17일 포교원 인사위원회(위원장 혜종, 이하 인사위)가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성희롱 발언 사건은 지난 해 12월 29일 불교상담개발원 직원 B씨가 서울노동자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사무총장 K씨가 자신(B씨)과 C씨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

직원 B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교상담개발원의 명예가 실추됐지만 이 기회로 더 나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C씨도 "K씨의 상습적인 성희롱적 발언에도 원장스님과 상담개발원에 누가 될까 염려해 참아왔다"며 "K씨의 사과라도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 당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K씨 "내 발언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전혀 몰랐다.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위 구성은 서울지방노동청의 "불교상담개발원은 2월 25일까지 징계 등 제출하라"는 공문에 따른 것이다. 조사위는 조사 후 징계수위를 인사위에 상정하게 되며, 차기 인사위 회의는 23일로 예정됐다.

이상언 기자

### 포교원, 포교·신도단체대표자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2월 2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신도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포교역량결집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심상 스님(동원 상임이사), 강홍원 단장(포교사단), 박상필 회장(국제포교사단) 등 각 신도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계승 스님(포교부장)

은 "지금까지 스님 중심의 불교였다면 앞으로는 재가자중심의 불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 재가신도단체의 역량 강화와 각 단체와 조직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3월 포교역량결집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결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 “대원불교대학이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 신입생 모집안내 (2년 4학기 과정 / 주·야간반)

2009학년도 전학기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09년 2월 10일(월) ~ 2009년 3월 4일(수)	
모집학과	◇ 대 학 : 불교인문학과정 I, 불교문화학과정, 불교명상상담심리학과정 ◇ 대학원 : 불교인문학과정 II (심화과정)
입학자격	◇ 대 학 : 재가불자 (일반인, 직장인) ◇ 대학원 :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강의시간	◇ 주간반 : 15:30 ~ 18:00 / ◇ 야간반 : 19:00 ~ 21:30
수업료	◇ 대 학 / 한 학기당 30만원 ◇ 대학원 / 한 학기당 30만원 *카드결제 가능 *교재비 별도
장학혜택	성적우수 장학, 근로 장학 외
특 전	대원불교사상강좌 등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개설하는 국내외 명사 초청 강좌 무료 청강
상담 및 문의 (원서교부)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 3층 ☎ 02-707-1072

### ■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

- 인문·사회·자연과학** :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있는 모든 자들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존중하며, 인간의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를 고찰하고 동시에 그 구현 과정과 방법을 탐구하는 바탕이라는 점에서 불교 정신과 사상은 그 자체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 위에서 출발하여,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복지, 생태, 환경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의 획득과 신화과정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은 특성에 입각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각기 별도 분리된 개별 분야로 취급하기보다 상관·상호관계를 살펴나가는 통섭과정으로 교과과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 전공필수 : 불교와 사회철학 I, II, 현대사회와 불교사상, 불교의 인문사회사상, 불교와 사회생물학, 불교와 현대물리학,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I, II
- 역사·문화·예술** : 인류유산의 정화인 불교문화의 이해를 위하여 불교의 원리와 관련 사상 및 역사관을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관계와 문화예술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과 경험을 통하여 세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과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불교문화 영역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 전공필수 :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근본불교의 이해, 한국불교문화사,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 심리·행동·상담** :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포함한, 상담의 제반이론과 기법을 통섭하고 불교를 통해서 상담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상담을 통하여 부처님법을 실현하여 다양한 명상방법으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명상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불교에 명상과 상담을 접목시켜 가능한 한 이상적인 교육방법에 접근시키고자 한다. 명상과 상담 양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천위주 교과과정으로 교육한다.
  -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 전공필수 : 마음챙김과 명상 I, II, MBSR이론과 실제, 자명명상 I, II,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정신분석이론과 이상심리학, 호흡명상심화과정
- 불교·철학·종교학** : 불교의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보다 깊은 상관관계와 상통하는 원리들을 연구, 교육하고,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반 학문이 추구하는 풍요롭고 수준 높은 인간생활의 달성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현대 지식인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호 관계 및 상통하는 원리 파악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 연구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 전공필수 : 지아초월과 뇌과학 I, II,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I, II, 집단심리이론과 실제, 명상상담과 심리치료, 불교예술과 심리치료,